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3]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학생 2’가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내일은 내가 발표할 차례지? 준비는 다 했어?
 학생 2: 음……. 솔방울과 습도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자료 준비는 충분한 것 같은데 ㉠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학생 1: 흥미로운 주제네. 자료 준비도 잘한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걱정해?
 학생 2: 사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나에게 집중하면 오히려 발표를 잘 못할 것 같아.
 학생 1: 그러면 몇몇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때?
 학생 2: 그래.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말대로 해 볼게. 고마워.

(나)
 여러분은 솔방울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테니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려는 내용은 솔방울의 모양과 습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을 잘 살펴보면 날씨에 따라 오르라들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그럼 먼저 솔방울의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솔방울 겉면은 작은 조각들이 물고기 비늘처럼 서로 조금씩 겹쳐져 있습니다. 이 조각을 ‘실편’이라고 하는데, 실편 한 개는 대개 소나무 씨앗 한 개씩을 감싸고 있습니다. 솔방울 하나는 보통 70~100개 정도의 실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실편을 이루는 조직 중 바깥쪽 조직은 안쪽 조직보다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 주며) 벌어진 솔방울에 물을 부으면 솔방울이 서서히 오르라드는데요, 이것은 실편의 바깥쪽 조직이 안쪽 조직보다 물기를 더 빨리 흡수해서 그만큼 빨리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편들이 모두 안쪽으로 굽어져서 솔방울이 오르라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솔방울을 건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실편 바깥쪽 조직이 안쪽보다 더 먼저 수축해서 솔방울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솔방울의 특성을 알고, 솔방울이 벌어진 정도로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땀을 잘 배출하도록 고안된 운동복도 있습니다. 이 운동복은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땀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이런 운동복을 입으면 참 시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솔방울이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와 이 원리를 생활에 이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 (가)의 상황에서 ㉠의 해소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청중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미리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하며 자신감을 얻는다.
 - ㉡ 발표할 주제가 청중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청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주제를 교체한다.
 - ㉢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발표 내용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
 - ㉣ 발표에서 실패했던 예전의 기억 때문에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두려움을 이겨낸다.
 - ㉤ 청중의 높은 지적 수준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다양한 질문을 작성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발표에 대한 자기 암시를 한다.

2. 다음은 ‘학생 2’의 발표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ㄱ.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겠어.
- ㄴ. 설명하려는 현상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겠어.
- ㄷ. 소개하려는 사례가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 ㄹ.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해야겠어.
- ㅁ.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해야겠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 (나)의 발표를 듣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솔방울 하나에는 소나무 씨앗 한 개가 들어있겠군.
- ② 솔방울이 습기를 잃으면 실편은 안쪽으로 오르라들겠군.
- ③ 옛날 사람들은 솔방울이 활짝 벌어지면 비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겠군.
- ④ 솔방울의 실편 안쪽 조직은 바깥쪽 조직에 비해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하겠군.
- ⑤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만든 운동복은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겠군.

[4~5] 다음은 상담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희 : (상담실에 들어서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 선생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선생님 : 응, 괜찮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말해 보렴. 무슨 일이니?

진희 : (자리에 앉으며)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 친구 문제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선뜻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그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상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몇 친구들이랑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 오, 좋은 생각을 했구나. 선생님도 또래 상담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단다. ㉢ 물론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이 상담해 주는 것도 좋지. 편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 갈 수 있으니까.

진희 : 네. 그런데 막상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상담을 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요…….

선생님 : ㉣ 그러니까 상담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지?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친구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혹시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 네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선불리 비판하지 말고.

진희 : ㉤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친구가 자기의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리고 그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너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 그것 때문에 크게 힘들었겠구나.’처럼 말야.

진희 : ㉥ 아, 정말 그렇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 또,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며 용기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진희 : 네.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 : 그런데 상담을 하려면 이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단다.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상담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테니까 선생님이 관련 기관을 소개해 줄게.

진희 : 고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 또래 상담 동아리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상대방과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에 수긍함을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5. ‘진희’가 ㉡를 대상으로 ㉢를 홍보하기 위해 교내 방송을 하고자 한다. <보기>와 같이 내용을 조직하여 말하고자 할 때, 각 단계에 따른 발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1단계: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을 던진다.
- 2단계: 문제 상황과 청자를 연관시킨다.
- 3단계: 청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4단계: 해결 방안의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5단계: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 ① 1단계 { 여러분, 드라마 ‘○○’ 보셨죠? 주인공이 또래 친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위로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 ② 2단계 { 여러분은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워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 ③ 3단계 {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기 힘들었던 여러분의 고민을 △△ 상담 동아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 ④ 4단계 { 고민을 털어놓지 않은 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 ⑤ 5단계 {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학급 게시판에서 상담 가능 날짜를 확인한 후 게시판에 있는 연락처로 신청하시고,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6~8] (가)는 일기이고, (나)는 학교 신문의 '독자 의견란'에 실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우리 지역의 ○○마을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처음으로 다녀왔다. 사실 나는 향토 음식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배운 밀국수를 통해 향토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겉보기엔 한 그릇의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꾸밈없는 맛과 정성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향토 음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하신 할머니의 말씀에, 지금껏 향토 음식에 무관심했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

흔히들 '향토 음식'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음식을 떠올릴 것이다. ㉡ 그러나 향토 음식은 전통 음식보다 좁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그 지방 고유의 음식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조리 방법에 있어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토 음식은 그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향토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이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우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 음식 선호도 설문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지역 향토 음식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지역 향토 음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이다. 나는 이 결과를 접하고서 이제라도 향토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주말에 ○○마을에서 열리는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다. ㉣ 주말에 함께 시간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는 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할머니들로부터 이 지역 밀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은 지역 특성상 논농사가 어려워 쌀 대신 밀을 많이 먹었고, 이웃과 함께 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정을 나누었다. 또, 양념을 많이 쓰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담백한 맛은 우리 지역 사람들의 ㉤ 활기찬 마음과 닮아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향토 음식을 배우는 것은 그 지역의 요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어져 온 문화와 정신을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 향토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라져 가는 우리의 식문화를 지킴으로써 전통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은 지역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데에도 ㉦ 참여할 것이다.

[A]

6. (가)와 (나)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자신의 체험이 지닌 한계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문제 상황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대비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현상을 분석한 설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7. (나)의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 건>

- (가)의 ㉠와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할 것.
- 속담을 적절히 활용하여 (나)의 ㉡를 유도할 것.

- ① 향토 음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으로서 현재의 식문화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향토 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향토 음식은 청소년의 관심이 없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떡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있듯이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을 이어 갈 소중한 유산 중 하나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의 작은 관심들이 모인다면 향토 음식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 ④ 향토 음식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우리 식문화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우물가에서 송충이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향토 음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는 데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 ⑤ 향토 음식의 전통에 의문을 갖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우리 향토 음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훌륭한 식문화와 융합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교체한다.
- ② ㉢: 접속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런데'로 수정한다.
- ③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소박한'으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기여'로 바꾼다.

[9~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교지에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글을 신고자 함.
- 예상 독자: 교지를 읽을 친구들과 후배들

[학생의 글]

내 꿈은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함께 고려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꿈을 갖게 된 것은 ‘피아노 계단’ 이야기를 접하고부터다. 어느 도시의 한 지하철역에는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이 있다. 일단 그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 계단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또 있다. 이 계단에는 오르는 사람들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전기료가 기부금으로 누적되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전자 간판도 달려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보람도 느끼게끔 하여 계단을 이용하도록 재치 있게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 낸 사람이 바로 공간 디자이너이다. 그는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에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실제로 주변에는 그런 공간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어 그중 몇몇 곳을 찾아가 보기도 했다. 이 과정을 거쳐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나도 사람들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공간을 창조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 계획을 세웠고,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먼 훗날 내가 디자인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미소 짓고 있는 나를 그려 보며, 오늘도 나는 내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려 한다.

9. ‘학생의 글’에서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한다.
 - ②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부각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 ③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이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하여 제시한다.
 - ④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작품의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⑤ 공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공간 디자인 작품을 예로 들어 제시한다.

10. 다음은 교지 편집장이 이메일로 보내온 수정 요청 사항이다. 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자신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고 수정 요청 사항

-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선정할 것.
-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추가할 것.
- 직접 찾아가 본 공간 디자인 작품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
-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안내할 것.

- ① 글에 언급한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제목을 제시하자.
- ②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자.
- ③ 우리 주변에서 환경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자.
- ④ 공간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 ⑤ 진학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자.

11.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학 생: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 위치 ↓ 조음 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임는]’, ‘뜯는[띯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12.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 ② 돌아서다
-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 ⑤ 오르내리다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보 기>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다 ㉠ ㉡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 ↔ 작다

작다 ㉨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

- ① ‘크다 ㉠’과 ‘크다 ㉡’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15.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식이 상한 것과 가스가 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각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탐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감각이다. 어떤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을 ‘취기재(臭氣材)’라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난다고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취기재의 분자가 코의 내벽에 있는 후각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동물만큼 후각이 예민하지 않다. 물론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개[犬]가 10억 개에 이르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1천만 개에 불과하여 인간의 후각이 개의 후각보다 둔한 것이다.

우리가 냄새를 맡으려면 공기 중에 취기재의 분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다시 말해, 취기재의 농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냄새를 탐지할 수 있다. 이처럼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최저 농도를 ‘탐지 역치’라 한다. 탐지 역치는 취기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가 메탄올보다 박하 냄새를 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까닭은 메탄올의 탐지 역치가 박하향에 비해 약 3,500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를 탐지할 수는 있지만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즉 ㉠ 냄새의 존재 유무를 탐지할 수 는 있어도 냄새를 풍기는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된다.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려면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3배가량은 높아야 한다. 즉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 수준으로 낮은 상태에서는 그 냄새가 꽃향기인지 비린내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같은 취기재들 사이에서는 농도가 평균 11% 정도 차이가 나야 냄새의 세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10만 개가 넘는다. 하지만 그 취기재가 무엇인지 다 인식해 내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쓰일 모든 취기재의 이름을 미리 알려 준 다음, 임의로 선택한 취기재의 냄새를 맡게 하고 그 종류를 맞히게 했다. 이때 실험 참여자가 틀린 답을 하면 그때마다 정정해 주었다. 그 결과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거의 두 배로 향상되었다.

위의 실험은 특정한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냄새를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냄새에 대응되는 명명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냄새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후각은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후각 수용기는 취기재의 분자에 반응한다.
- ② 후각은 유해한 물질을 탐지하는 역할도 한다.
- ③ 박하향의 탐지 역치는 메탄올의 탐지 역치보다 높다.
- ④ 인간은 개[犬]에 비해 적은 수의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
- ⑤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반응할 수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 그와 관련된 냄새를 통해 환기되는 경우가 있다.
- ② 특정한 냄새와 그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 ③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향상되면 그 취기재의 탐지 역치를 낮출 수 있다.
- ④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인간이 인식하는 취기재의 가짓수보다 많다.
- ⑤ 같은 취기재들 사이에서 농도 차이가 평균 11% 미만이라면 냄새의 세기를 구별하기 어렵다.

18.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5인 경우
- ②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15인 경우
- ③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35인 경우
- ④ 탐지 역치가 20인 취기재의 농도가 15인 경우
- ⑤ 탐지 역치가 20인 취기재의 농도가 85인 경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번갈아 실행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실행 대기 프로그램의 목록인 '작업큐'에 등록한다. 운영 체제는 실행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업큐에서 선택하여 CPU에서 실행하고 실행이 종료되면 작업큐에서 지운다.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A와 B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그램은 실행을 요청한 순서대로 작업큐에 등록되고 이 순서에 따라 A와 B는 차례로 실행된다. 이때 A의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B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동시에 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A와 B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실행하면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 CPU의 실행 시간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구간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여기서 한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구간 실행'이라 하며,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을 '구간 시간'이라고 하는데 구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한다. A와 B의 구간 실행은 원칙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번갈아 반복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되면 나머지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된다.

한편, 어떤 프로그램의 구간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작업큐에서 대기한다. A의 구간 실행이 끝나면 A의 실행이 정지되고 다음번 구간 시간 동안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이때 A가 정지한 후 B의 실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교체 시간'이라고 하는데 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 교체 시간에는 그때까지 실행된 A의 상태를 저장하고 B를 실행하기 위해 B의 이전 상태를 가져온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서 실행되더라도 운영 체제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판단해야 하므로 구간 실행 사이에는 반드시 교체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큐에 등록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총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순수하게 프로그램의 실행에만 소요된 시간인 '총실행 시간'에 '교체 시간'과 작업큐에서 실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다. ㉠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구간 실행 횟수가 많아져서 교체 시간의 총합은 늘어난다. 그러나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거나 같은 프로그램은 한 번의 구간 시간 내에 종료되고 곧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제 프로그램 A, B, C가 실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가 실행되고 있고 B가 작업큐에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C를 실행할 경우, C는 B 다음에 등록되므로 A와 B

의 구간 실행이 끝난 후 C가 실행된다. A와 B가 종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구간 실행이 필요하면 작업큐에서 C의 뒤로 다시 등록되므로 C, A, B의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세 프로그램은 등록되는 순서대로 반복해서 실행된다.

이처럼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지면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따라서 작업큐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제한해 대기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PU 스케줄링은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이다.
- ②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면 실행 결과는 작업큐에 등록된다.
- ③ 구간 실행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간 시간보다 짧다.
- ④ CPU 한 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다.
- ⑤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20. ㉠의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②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이 늘어난다.
- ③ 총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④ 구간 시간이 늘어나면 구간 실행 횟수는 늘어난다.
- ⑤ 작업큐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은 늘어난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운영 체제가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으로 선택하면 작업큐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도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프로그램 P, Q, R이 실행되고 있는 예를 생각해 보자. P가 '구간 실행' 상태이고 Q와 R이 작업큐에 대기 중이며 Q의 순위가 R보다 높다. P가 구간 실행을 마치고 작업큐에 재등록될 때, P의 순위를 Q보다는 낮지만 R보다는 높게 한다. P가 작업큐에 재등록된 후 다시 P가 구간 실행을 하기 직전까지 _____ [가] _____ 을/를 거쳐야 한다.

- ① P에서 R로의 교체
- ② Q의 구간 실행
- ③ Q의 구간 실행과 R의 구간 실행
- ④ Q의 구간 실행과 Q에서 P로의 교체
- ⑤ R의 구간 실행과 R에서 P로의 교체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런 인식은 묵란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 따라서 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石蘭)>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둔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랬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不作蘭圖)>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그 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묵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 두기도 했다. 김정희도 <부작란도>에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 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 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갈필: 물기가 거의 없는 붓으로 먹을 조금만 묻혀 거친 느낌을 주게 그리는 필법.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후대 작가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다.
- ③ 특정한 입장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해석을 근거로 들어 작품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을 예로 들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했다.
- ② 묵란화는 그림의 소재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 ③ 유배 생활은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묵란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림 양식이다.
- ⑤ 김정희는 말년에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고 그리는 묵란화를 창안하였다.

2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완만하고 가지런한 잎새는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절에 추구하던 단아한 품격을 표현한 것이다.
- ② ㉠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은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③ ㉡에서 바람을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김정희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잎은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 자신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 ⑤ ㉠과 ㉡에 그려진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이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에 나타난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그러므로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으로써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술 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래된 주제이다.

- 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석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겠군.
- ②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군.
- ③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26.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② 미국의 독립 선언에 법률실증주의가 영향을 주었다.
- ③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
- ④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 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권위만이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③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지만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④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자연법의 역할은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29.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법과 정의의 관계로 법을 바라볼 때 자연법 사상과 법률실증주의는 서로 마주 보도록 양쪽 끝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하지만 ㉣ 법률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할
- ② 가져올
- ③ 기다릴
- ④ 떠올릴
- ⑤ 헤아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A]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B]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④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 ③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의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낸다.
- ④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 ⑤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짝’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 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②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가 내적인 힘을 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④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⑤ ‘꽃 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더 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경충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리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갓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 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갓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가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 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 -

(나)

S#4. 윤기준의 방 안 (저녁) (현재)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기준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기준,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기준의 상반신.

윤기준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 내 ㉥*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성묘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폭 쉬시다 오시면 대회생제약주식회사의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5. 같은 방 창밖 풍경 (저녁) (현재)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종략)

S#11. 시골 자동차길 (낮) (현재)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S#12. 버스 안 (낮) (현재)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훑훑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 김승옥, 「안개」* -

* 인서트(Insert): 삽입된 장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신문이나 편지, 사진 등이 끼이는 것.

* 로우브: 길고 품이 넓은 겹옷. 여기서는 목욕 가운.

* ㉥: 효과음(Effect).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 「안개»: 「무진기행」을 각색한 시나리오임.

34.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 의식의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빈번히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중심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시대 배경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게 긴장을 풀고 공상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다.
- ② ㉡: 엉뚱한 공상을 하던 ‘나’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 ③ ㉢: ‘나’의 무진행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한다.
- ④ ㉣: ‘나’에게 기대하는 ‘아내’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아내’의 말을 긍정하며 그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36. (나)는 (가)를 각색한 시나리오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서사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회상의 방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아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비유적 표현으로 서술한 데 비해, (나)에서는 대사로 처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아내’의 말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데 비해, (나)에서는 ‘윤기준의 방 안’, ‘시골 자동차길’, ‘버스 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버스의 덜컹거림이 주는 느낌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주는 데 비해, (나)는 그 느낌을 버스가 자갈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장면(scene)은 시나리오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을 뜻한다. 장면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이 변할 때 나뉜다. 구분된 장면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행동의 연속성이나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시선의 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담아내게 된다. 장면 속에 담긴 여러 표현들은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① S#4에서 인서트된 사진은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해 선택된 요소이다.
- ② S#4에서 등장하는 공간과 소품들은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된 요소들이다.
- ③ S#5의 창밖 풍경은 S#4의 공간과 대조되어 인물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 ④ S#4에서 S#5로의 전환은 방 안의 우울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S#11에서 S#12로의 전환은 카메라의 시선이 버스의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뜻밖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나?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쭙되,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펄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피 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B]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소장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써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 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임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 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뉘 집 자손이 모셔 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만리 호국 일당에 잡히어 죽을 줄 알았더니, 십 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갖은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 옥새: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 항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③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⑤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한다.

3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 ②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 ③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 ②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 ③ [B]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
- ④ [B]에서는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⑤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충렬은 영웅으로 귀환한다.

- ①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 위기의 해소가 국가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환향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 ② 친구는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 ③ 형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했다.
- ④ 우리 팀이 상대를 큰 차이로 이기고 우승했다.
- ⑤ 삼촌은 병을 이기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구슬이 ㉠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 떨어진들
 ㉢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 외따로이 살아간들
 ㉤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

(나)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입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통탕** 건너가서 정(情)앳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 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어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였어라.
 - 작자 미상 -

* 거머희뜩: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곰비임비: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천방지방: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삼대: 삼[麻]의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④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44.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 ② 화자가 '입'이라 여긴 '거머희뜩'한 것을 향해 '워렁통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입'으로 착각하여 '입'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 ⑤ 화자가 '입'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